공정위 승소율 90.7%… '뭣이 중헌디'

한 용 수의 돌직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한 비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 90.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지는 경우가 눈에 띄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10건 중 1건에 패소한 결과를 '무리하게 기업 제재를 남발하는게 아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 제재에 대응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2020년 70.9%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83.7%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공정위 전부승소율은 2021년 82.0%로 다시 높아졌다가 2022년엔 다시 70.9%로, 2023년엔 71.8% 수준에 머물렀다. 통계적으로 공정위 승소율이 종전보다 높아졌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공정위는 과징금액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처분한 제재 금액의 99.2%가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 금액 또한 변수가 많아 큰 의미가 없다.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은 전액 취소돼 이번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쿠팡과의 33억원 과징금 소송의 경우도 2심까지 공정위가 패소해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로 빠졌다. 추후 상급 법원에서 언제든 과징금을 되돌려줘야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KT 일감몰아주기 사건(950억원), LG유플러스 담합 사건(540억원), 해상운송 담합 사건(총 300억원), 지멘스 헬시니어스 거래상 우월지위 남용 사건(30억원), 대림산업 담합 사건(28억원), LG생활건강 자사우대 사건(15억원) 등 주요 사건에서 패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되돌려준 과징금은 1016억원에 이른다. 환급금 지급시엔 과징금을 낸 이후 법정이자인 가산금까지 국고에서 얹어 지급하는데 공정위는 이날 가산금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7~2023년 행정소송 패소로 기업에 되돌려준 환급액은 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급가산금으로 444억원을 돌려줬는데, 재원은 국민 세금이다.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큰 규모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잇따라 패배하면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키운것도 문제다. 승소한 기업들도 과징금을 돌려받고 공정위 제재로 얻은 불명예는 해소했다 해도 소송은 기업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공정위가 이에 대응한 인력과 세금 낭비도 눈여겨봐야 한다.

공정위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공정위 처분에 기업이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제기되는 비율부터 낮추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기업이 애초에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모호한 조항은 개정해 기업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법적 불확실성은 소송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법 해석에 관한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분쟁이 법정에 가기 전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와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승소율을 높인다고 심사인력과 예산만 늘리는건 해법이 아니다. 이 또한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한다.

/세종=hys@metroseoul.co.kr

초현실사회, 축복인가 재앙인가

기자 수첩

구 남 영 〈산업부〉

영화 '리브 더 월드 비아인드'에서는 미국이 공격받아 하루 아침에 IT시스템이 마비되고 인프라가 동시에 멈추자 각종 범죄가 휩쓸고 사회가 몰락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영화같이 'IT 블랙아웃'으로 글로벌 재앙이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지난 19일 전 세계를 강타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스템 장애는 초연결 사회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주요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금융 및 통신 서비스 등 모든 인프라가 동시에 멈추는 영화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가 보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MS의 운영체제(OS) 윈도와 충돌을 일으켜 MS 클라우드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며 발생했다.

MS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국내 기업들까지 피해를입었다.

MS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업데이트 충돌로 영향을 받은 윈도 기기가 850만대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윈도 기기의 1%미만의 비율지만,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컸던 이유는 중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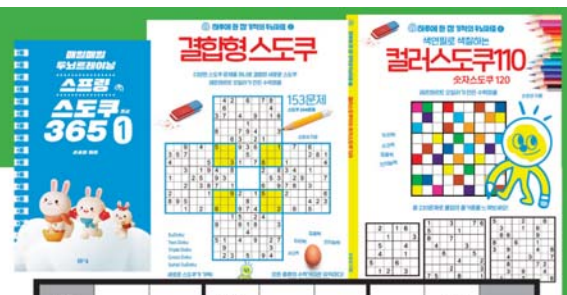
특히 이번 사건은 초열결 사회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MS라는 단 한개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전 세계를 '셧다운' 시킨 것.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내 기업은 물론 공공시장까지 대다수가 외산 SW를 사용하고 있다. OS 분야만 보면 외산 비중이 98.26%에 달한다.

한국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대표하는 스마트 강국이다. 다만 스마트 강국이 축복인지 재앙인지는 구별해야 할 문제다. 초현실 사회로 인해 스마트 기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사회에 살고 있다. 기차표 하나도 창구에서 구매하기 어렵고 뉴스도 온라인 미디어가 없으면 접하기 어렵다. 은행은 오후 4시 전에 문을 닫는 것은 물론, 대다수 업무는 앱으로 이어져있다.

앞으로 초현실사회가 더욱 팽창된다면 단번에 전세계는 물론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국가적 재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부디 이번 MS사태로 급격한 디지털 정보화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되새기고 취약점을 깊게 고심해야 할 때이다. /koogija_tea@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4		1		9
		1						
		5			9			3
5	6						9	
	2						6	
	1						8	4
2			6			8		
						9		
1		9		8				6

8			2				6	
6				1	9			2
						5		
7		5			3	2		
		4	7			6		3
		1						
9			1	7				8
	7				2			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5	3	2	4	7	1	6	9
6	4	7	5	1	9	3	8	2
1	2	9	8	3	6	5	7	4
7	9	5	6	8	3	2	4	1
3	1	6	9	2	4	8	5	7
2	8	4	7	5	1	6	9	3
5	3	1	4	9	8	7	2	6
9	6	2	1	7	5	4	3	8
4	7	8	3	6	2	9	1	5

3	7	2	8	4	6	1	5	9
6	9	1	3	5	7	4	2	8
8	4	5	1	2	9	6	7	3
5	6	8	4	1	3	7	9	2
4	2	3	9	7	8	5	6	1
9	1	7	5	6	2	3	8	4
2	5	4	6	9	1	8	3	7
7	8	6	2	3	4	9	1	5
1	3	9	7	8	5	2	4	6

오늘의 운세

7월 23일 (음 6월 1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무슨 소용. **48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 **60년생** 시간약속을 준수. **72년생** 모두 다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해라. **84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37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되니 주의. **49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자. **6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외출을 자제. **73년생** 좋은 관계 유지 부적절한 관계는 망신 수를 부름. **85년생**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

38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50년생** 해 왔던 일로 감사한 일이 생긴다. **62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74년생** 답답해도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해야. **86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39년생 의사 표현이 정확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51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신중하게 선택. **63년생**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유유히 보내자. **75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87년생** 침묵해라 침묵은 금이다.

40년생 공들인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52년생** 이웃의 마음을 얻고 신망도 받는다. **64년생** 동료와 의견 차이로 손해가 발생하니 인내하여라. **76년생** 오늘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절제. **88년생** 가족에게는 양보가 따른다.

41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쇼핑을 자제. **53년생** 소문난 잔치에 가도 먹을 것이 없다. **65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피곤. **77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89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하지 마라.

42년생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니 남의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 **54년생** 소금 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 **66년생** 여의주를 얻었으니 무슨 일이든 도전해도 좋다. **78년생** 가슴속 안개 흡연은 신중. **90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자.

43년생 마음이 우울하니 친구가 웃을 일을 만들어 준다. **55년생**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67년생** 주머니에 손을 넣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79년생** 상사와 동료 칭찬에 신바람이 난다. **91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44년생 친한 친구 문상 갈 일이 생긴다. **56년생** 투기와 투자를 잘 구분하고 실행. **68년생**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날이다. **80년생** 불평보다는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갖자. **92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는 낭패를 본다.

45년생 웃지 않으려면 장사를 접어야 한다. **57년생** 오늘 길 떠나게 되면 의외의 좋은 이성을 만난다. **69년생** 혼자는 외롭지만 둘은 괴롭다. **81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슬픈 현실. **93년생**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적다.

46년생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58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이게 현실. **70년생** 마른 논에 물들어 오듯이 고민이 해결. **82년생** 새로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제도도 변하긴 하는데. **94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

47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 **59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이다. **71년생** 사공이 많으면 의견통일이 어려우니 중심을. **83년생** 해왔던 일에 성과도 좋으니 전진. **95년생** 마음을 비우고 투자 공부를 하자.

김상회의 四季

재물과 관리력

병이 나거나 죽는 문제가 발생하는 때는 어느 때겠는가. 자~ 재물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뒤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웃음이 뚝 그쳐지는 표정이 된다. 재물 돈이 생긴다고 하니 좋아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재물이 들어오는 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재다신약 사주가 그렇다. 재다신약은 재성이 많은데 관리를 못 하는 팔자다. 팔자에서 돈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주의 그릇이 깨졌거나 작다.

많은 재물을 감당하려면 몸과 마음이 재물의 무게를 이길 수 있도록 타고나야 한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다. 돈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의 팔자를 타고나야 한다는 뜻이다. 타고난다는 건 체력 정신 배짱 추진력 등의 전반적인 부분을 두루 말한다. 재다신약 사주는 어떤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하기 힘든 사주에게 큰돈이 들어오는 건 사기를 당하거나 스트레스로 마음의 병을 얻을 수도 있다. 큰돈이 들어와서 좋아했는데 몸이 상하게 되는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만나는 것이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이치를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복권에 당첨된 뒤 인생이 망가진 사례는 흔하다. 감당 못 할 사람에게 큰 재물이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상하지 못한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를 올라탔을 땐 잠시만 기뻐하고 오래 조심해야 한다. 뒤이어오는 운세에서 상관傷官 성분까지 나타나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영역으로 진입된다. 발병發病및 파산 사망까지 이르러 위태하게 되니 각자의 사주팔자를 잘 살펴보고 뒷일을 판단하기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7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8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